



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

심의관 정홍근, 사무관 신민철
(044-200-2135)

이낙연 국무총리, 「피아 키아스고오」 덴마크 국회의장 면담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6일(화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한 「피아 키아스고오(Pia Kjærsgaard)」 덴마크 국회의장을 면담하고, △양국간 교역·투자 증진 △녹색성장 협력 강화 △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
- 이낙연 국무총리는 키아스고오 국회의장의 방한을 환영하고,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에 고위인사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교역·투자가 확대되며, 환경과 녹색성장, 의약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호혜적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.
 -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히, 덴마크가 글로벌녹생성장연구소(GGGI)에 적극 참여하는 등 녹색성장 분야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.
- 키아스고오 국회의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축하와 함께 패럴림픽의 성공도 기대한다고 하면서,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녹색성장 부문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.
 - 또한, 키아스고오 국회의장은 한국과 덴마크 양국이 내년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교류와 접촉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, 한국의 적극적인 '녹색글로벌목표를 위한 연대(P4G)' 참여에 사의를 표했습니다.

※ P4G(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/녹색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)는 녹색성장,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한 개발목표(SDGs) 이행을 위해 덴마크 주도로 출범한 민관협의체로서 한국, 덴마크, 칠레, 멕시코, 베트남, 에티오피아, 케냐 등이 참여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복원된 남북 대화 결과를 설명하고,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덴마크가 지속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
○ 키아스고오 국회의장은 북핵문제의 평화적·외교적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.